

주현절 후 네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1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9장 “피난처 있으니” (새 7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 번 시편(Psalm) 1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1:32-39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사랑 안에서”	찬양대
설 교 Sermon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That Is Why I Have Com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29 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새 37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답지 못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와, 행함 없는 믿음과,

그릇된 신념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 2:12, 시 25: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한글개역 **막1:38-39**)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to the nearby villages--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NIV **Mark 1:38-3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30 (주일)	1/31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창31	창32	창33	창34	창35,36	창37	창38
본문	막2	막3	막4	막5	막6	막7	막8
	예7	예8	예9,10	요1	요2	요3	요4
	롬2	롬3	롬4	롬5	롬6	롬7	롬8

수/요/ 성/경/공/부 선/교/교/육/ 특/별/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2/2 오후7:30)	“원컨데 심판하시는 여호와는”(삿11:12-28)
선교/교육 특별기도회 (2/5 오전6:30)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사11:6-10)

지난 주일(1/23) 말씀

“권세 있는 새 교훈”(막 1:21-28)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를 전해주고 있는데, 본문은 (처음) “저희가 가버나움(궁홀의 마을)에 들어가니라”(막1:21)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마다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충격을 받았다(막1:22)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특별한) 권세(Authority)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사전적인 의미(“남을 복종하게 하는 힘”)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으니, (더 이상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더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주인노릇하지 말며, (더 이상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만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를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곳(Here & Now)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